

SK 한동민의 각오 "미친 개처럼 뛰겠다"

등록 2019.10.14 17:42:45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SK 와이번스 한동민이 8월 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SK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3회초 1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중간 1루타를 친 뒤 진루하고 있다. 2019.10.14. dadazon@newsis.com

【인천=뉴시스】김주희 기자 = "미친 개처럼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SK 와이번스 한동민(30)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정규시즌의 아쉬움을 가을에는 꼭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한동민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터지지 않는 타격에 마음 고생을 했다.

그는 지난 시즌 41홈런을 때려내는 등 타율 0.284, 115타점으로 활약했다. 포스트시즌에서는 고비 때마다 홈런을 쏘아 올리며 팀 우승을 견인했다.

키움 히어로즈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결정적 홈런을 터뜨렸다.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에서는 6차전 연장 13회 결승

홈런을 때려냈다.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도 한동민이 거머쥐었다.

그러나 올해는 정규시즌 125경기에서 타율 0.265, 12홈런 52타점에 그쳤다.

가을야구는 정규시즌 부진을 털어낼 기회다.

14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리는 키움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만난 한동민은 "미친 개처럼 하겠다. 올해는 기대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라도 잘해 팀에 기여하겠다.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가을의 기억도 힘이 되고 있다. 한동민은 "작년 포스트시즌의 좋은 기운이 올해도 연결됐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되는 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다보면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시즌 1위를 달리던 SK는 시즌 막판 두산에 1위를 빼앗겼다. 가을야구를 준비하는 팀 분위기가 마냥 좋을 순 없는 상황이었다.

한동민은 "마지막에 1위를 내주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한동안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은 뒤 "하지만 주장 (이)재원이 형을 중심으로 선배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다시 '으쌰으쌰'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은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났던 팀이다. 한동민도 키움 경기를 열심히 보며 분석했다. 한동민은 "키움은 젊은 선수들이 많아 겁 없이 달려들고, 거침없이 하는 팀이다. 우리가 거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경엽 SK 감독은 이날 경기 전 키플레이어로 한동민을 꼽았다. 염 감독은 "주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한동민이 한 방을 쳐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동민은 "준비를 많이 했다. 단기전에서 우리 팀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좋은 결과를 내겠다"며 눈빛을 빛냈다.

juh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